울산서 펼쳐진 생명살림 환경콘서트

울산불교환경연대, 6월 6일 천그루 축제 개최

생명 위한 탄소 중립 강조
임현정·라마 등 환경공연
"생활속 습관의 개선필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불교환경연대가 6월 6일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 대웅전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다.

탄소중립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콘서트가 진행됐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6월 6일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 대웅전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광주전남 공동대표 해오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준비위 안도 스님 등 각 지회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이 모였다. 또 조병철 남부 지방 산림청장,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환경콘서트는 나무를 위한 콘서트였다.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배출해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주는 탄소흡수림을 소원하고 지키기 위한 생명콘서트였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울산환경연대 주지 천도 스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환경을 위한 음악가·그린 아티스트 '라마'를 초청했다.

또 백련사는 콘서트 뿐 아니라 환경행사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NO플라스틱 작품전이 진행돼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알렸으며, 지구 환경 구호를 적은 피켓도 사찰을 장엄했다.

백련사 측은 EM발효액과 부채 등을 나눠주며 환경을 위한 생활 변화도 촉구했다. 이번 행사서는 많은 대중의 참여에도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환경콘서트다운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콘서트에서 가수 라마는 곡 '나쁜 사람', '천지인', '어디서 왔니?' 등을 부르며 대중들에게 환경 메시지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울산환경연대의 구호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를 가사로 붙여 만든 '지구송'을 대중과 함께 불렀다.

임현정 피아니스트는 '리스트 초절기교 에튀드 10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7번 1악장', '드뷔시 꿈', '베토벤 운명 교향곡 피아노 버전', 임현정 작곡의 아리랑판타지 등 다양한 곡을 선사했다.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대중들은 숨을 멈춘 듯 집중했고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하며 호응을 보냈다.

참가한 대중들은 "새로운 방향의 신선한 환경운동 사례를 접했다"며 "노플라스틱 전시와 다채로운 활동 등을 통해 탄소흡수림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 받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도 스님은 "우리의 집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예전과 같은 일상을 원한다. 지구의 아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환자를 치료하듯 생활 속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자비심을 발현해 상처를 치료하는 작업이 오염된 곳을 정화하고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천그루 축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법사, "호국영령이여! 영면하소서"

제31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 봉행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제31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를 봉행했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법석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가 개최됐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제31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공에 이어 개회사 및 헌다로 시작해 △삼귀의 △보현행원 △우리말반야심경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기념사 △인사말 △음성공양 △시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심산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창건주 가족을 비롯해 김희만·김건웅·유수재 홍법사 고문, 김수현 여성개발원 원장, 이대원성 보살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허공이 진리임을 이해하고 허공을 향해 마지를 올리며 호국영령을 기렸다. 허공처럼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기를 발원하며 바라밀재를 올린 지 31년이 되었다"며 "허공마지 바라밀재는 창건주인 하도명화 보살의 원력이었다. 그 신심과 원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1989년에 부산불교장학회가 창립되고 이듬해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 창립됐다. 1991년부터 영주암에서 제1회 홍법바라밀재를 개최하여 홍법대상을 시상하고 장학금 및 불교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996년부터 청소년 불교지도자와 포교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제1회 홍법 어울림 마당을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라 명하고 두구동 신창농원(현, 홍법사)에서 봉행했다. 1999년부터 홍법바라밀재와 홍법어울림 마당의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통합해 호국영령을 천도하고 불법홍포를 아우르는 현재의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행사를 봉행하게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강백 백운스님 추모 1주기 다례제 봉행

송광사, 화엄사, 범어사 등 평생 강학에만 전념했던 백운당 지흥 대강백(1934~2020)의 1주기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는 6월 7일 대웅전에서 1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개최하고 스님의 사상과 뜻을 이어가는 행사를 가졌다.〈사진〉

행사는 종사영반과 문도대표의 헌다, 행장소개(백양사 수좌 일수스님), 추모입정(육성법문), 추모사(범어사 주지 경선, 백양사 주지 무공), 내빈헌화 및 헌다, 문도대표(진우 스님) 인사, 파산게로 이어졌다.

진우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문도들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내사 양성해 환수 문화재 가치 알린다

고성옥천사,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 교육 실시

경남 고성 옥천사가 환수문화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옥천사(주지 종성)는 6월 6일 경내 무우당에서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재 환수의 의미 및 가치를 교육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됐다.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에는 주지 종성 스님, 원명 스님, 오세덕 경주대 교수와 수강생이 동참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지 종성 스님의 인사말 후 강의가 진행됐다.

이 날 강의는 오세덕 경주대 교수가 담당했으며 옥천사 사찰건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세덕 교수는 "옥천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고종까지 9번의 중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왔다. 시대별 조상들의 손길을 모두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 역사는 옥천사 사적기를 통해 자세히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천사는 6월 6일 경내 무우당에서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은 △옥천사의 사찰건축(오세덕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을 시작으로 △6월 13일 대웅전과 명부전 불상을 중심으로(이희정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6월 20일 옥천사 괘불을 중심으로(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6월 27일 옥천사 소장 불서의 종류와 가치(이종수 순천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주지 종성 스님은 "옥천사에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시왕도(보물 제1693호, 제2조강대왕도), 미국에서 찾아온 나한상(도유형문화재 제628호) 등이 있다. 환수문화재의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전쟁 희생자 위한 수륙대재 눈길

함안 달전사, 제15회 천지명양 무차수륙대재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영면을 발원하는 수륙대재가 봉행됐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경내에서 '제15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한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대재에는 달전사 주지 원명 스님, 정광 스님, 지융 스님, 윤성 스님, 만백 고봉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수륙대재는 △대령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쇄수결계 △사자단 △오로단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상,중진공 △하위시곡 및 하위수계 △화청 장엄염불 △봉송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수륙재는 대한민국의 많은 전란 가운데 함안지역의 영혼들을 위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며 "수륙무차라는 말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산사람과 영가가 함께 공덕을 짓고 받고 베풀며 화합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안 달전사가 위치한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종 방어선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장소이다. 당시 희생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가 봉행되고 있다. 아군과 적군, 민간인 희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된 국군영가 1854인의 명단을 표기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 고

- 대법원 임시종정 선임결정 -

결 정

사 건
2021마5232 임시총정선임

신청인, 상대방
1. 황의용(법명: 청암) 2. 전점주(법명: 혜공)
3. 고영욱(법명: 지혜) 4. 국순철(법명: 태성)
5. 이종도(법명: 명운) 6. 임우섭(법명: 성암)

사건본인
대한불교원효종

사건본인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1. 오양근 2. 이은우 3. 이춘근 4. 정성일
5. 이규만 6. 배재식 7. 손영채

원심 결정
대구고등법원 2021. 1. 12.자 2020 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손영채는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재항고인 손영채의 재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상고이유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년 6월 1일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직인 변경 공고

대법원 임시종정 선임결정에 따라
대한불교원효종 대표권자로 유일 적법한
임시종정 이종윤(법명:원호)스님이 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종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체제를 임시종정 이종윤(법명:원호)스님이
종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할 것입니다.

대표권사칭, 대표권 행사행위는
민, 형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합니다.

임시종정 새직인

불기 2565(2021)년 6월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합장